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일본어와 한국어!

- ‘맞는다’와 ‘맞다’ 어느 쪽이 맞아?

한국 드라마 속에서 남녀가 이야기하는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여자가 무언가를 생각해 낸 듯 큰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자막에는 ‘아, 맞는다!’. 여러분은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으세요? 이것을 보고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도 그중 1명입니다만). 일본어에서는 ‘あ、そうだ!’, ‘そういえば’와 같은 표현에 해당되는데, 무언가를 생각해 냈을 때 (기억의 상기) 쓰는 표현 (감탄사의 용법)은 주로 ‘아, 맞다!’라고 하는 쪽이 더 익숙하신 학습자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느 쪽이 맞을까요? 우선 일본어와 다른 한국어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한국어는 동사와 형용사의 현재형 (비과거형)이나 연체형의 활용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연체형 (현재)의 경우는 동사의 기본형의 어간 뒤에 ‘-는’을 결합합니다. 또한 현재형 (비과거형)의 경우에도 형용사는 기본형 그대로 쓸 수 있지만, 동사의 경우에는 기본형의 어간 (마지막이 자음으로 끝나는지 모음으로 끝나는지에 따라서) 뒤에 ‘-ㄴ다 / -는다’를 결합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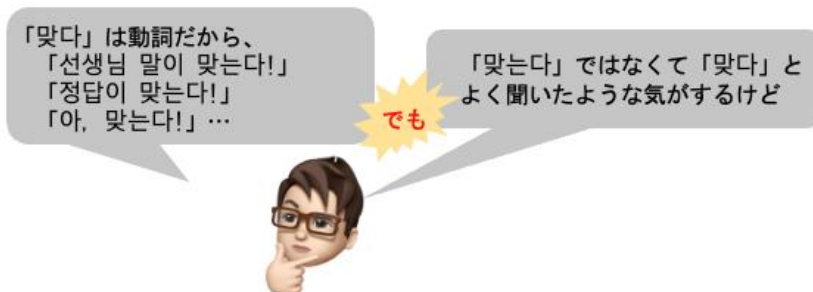
	基本形	連体形 (現在)	現在形 (非過去形)
形容詞	예쁘다 [イエップダ] (キレイだ)	예쁜 사람 [イエップン サラム] (キレイな人)	예쁘다. (キレイだ。)
	좋다 [ジョタ] (いい)	좋은 사람 [ジョウン サラム] (いい人)	좋다. (いい。)
動詞	가다 [ガダ] (行く)	가는 사람 [ガヌン サラム] (行く人)	간다. [ガンダ] (行く。)
	먹다 [モックタ] (食べる)	먹는 사람 [モンヌン サラム] (食べる人)	먹는다. [モンヌンダ] (食べる。)

그럼 ‘맞다’에 대해서 살펴 봅시다. ‘맞다’는 다음의 예문처럼 여러가지 뜻으로 쓰이는데, ‘동사’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씁니다.

- ① 공이 머리에 맞는다. (ボールが頭に当たる。)」
- ② 형에게 맞는다. (兄に殴られる。)」
- ③ 비를 맞는다. (雨に降られる。)」
- ④ 주사를 맞는다. (注射を打つ (打たれる)。)」

위의 예문에 쓰인 ‘맞다’는 ‘어떤 동장이나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이기 때문에 현재형 (비과거형)은 ‘맞는다’가 됩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은 ‘맞다’의 경우입니다.

- ⑤ 선생님 말이 맞다! (先生の言うことが正しい!)」
- 정답이 맞다! (答えが合っている!)」
- ⑥ (감탄사의 용법으로서) 아, 맞다! (あ、そうだ!)」



⑤의 ‘맞다’는 ‘合っている、一致している、正しい’등의 형용사적인 의미에 가까운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경우이며, ⑥은 감탄사 용법과 같은 특수한 의미로 쓰이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아직 동사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 말이 [맞는다]! (先生の言うことが正しい!)’, ‘정답이 [맞는다]! (答えが合ってる!)’, ‘아, [맞는다]! (あ、そうだ!)’라고 말해야 규범적으로 맞습니다. 하지만 한국어 모어 화자들 사이에서도 이것을 ‘맞는다’라가 아니라 ‘맞다’로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⑥와 같은 경우에는 ‘맞다’가 더 주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동사의 ‘맞다’를 형용사로 (또는 ⑥과 같이 감탄사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한국어는 동사와 형용사가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늦다’의 경우가 그렇습니다만, ‘늦다’는 동사의 ‘遅れる’의 뜻으로도 형용사의 ‘遅い’의 뜻으로도 쓰입니다. 예를 들면 ‘약속 시간에 늦는다’나 ‘늦은 시간’과 같이 말이죠. 전자는 ‘늦는다’와 같이 동사활용 (비과거형)을 하고 있으며 후자의 경우에는 ‘늦은’과 같이 형용사활용 (연체형)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모어 화자의 머릿속에는 ‘맞다’는 ‘늦다’처럼 동사의 ‘맞다’와 형용사의 ‘맞다’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어 ‘合っている、一致している、正しい’등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 ‘맞다’는 형용사 (또는 감탄사)로 구별해서 쓰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아직 이런 ‘맞다’의 사용이 올바른 표현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동시에 ‘언어의 오용’일지도 모르지만 ‘아, 맞다!’와 같은 말이 우리들의 언어 생활 속에 깊숙이 침투해 있다는 사실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아, 맞다!’가 살아남아 하나의 지위를 얻어 낼지 아니면 ‘아, 맞는다!’로 강제적으로 순화되어 사라질지, 앞으로의 그 동향이 궁금하네요. 여러분들도 ‘あ、そうだ!’나 ‘合っている、正しい’의 뜻으로 ‘맞다’가 쓰이는 장면을 목격하면 ‘맞다!’였는지 ‘맞는다!’였는지 확인해 보세요.

박천홍 (도쿄대학교)